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이명박 정권에서 호남이 노골적인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호남사람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 말을 옮기자면 이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이정권 노골적 호남 홀대

그의 발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대통령 당선에 부동의 상황인데도 호남이 20% 이상의 지지를 해준다면 박정희 정권 이후 첫 '전국 대통령'으로서의 의지가 역력했다.

그때서인지 대통령 취임 이후 호남은 인사든, 예산이든 '변방'에 지나지 않았다. 상당 기간 현직 장관 중에 이 지역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여수에서 열린 전라선 북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호남에 대한 나름의 애정(?)을 과시했다.

'네 탓' 아닌 '내 탓'으로 돌리려면

에서도 이런 소외는 없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책사업을 보더라도 영남에 무려 17조 원이 집중된 반면 호남은 그 5분의 1 수준인 3조 4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느 지역만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느 대통령이 호남에 몇 번을 왔는가 자

는 대통령이 아니다"는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호남사람들은 많지 않다. "호남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말도 그저 인사말로 들릴 뿐이다.

세히 봤는데, 정말 적게 오셨더라. (나는) 역대 대통령 중 호남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필자가 지난 4월 20일자 본보 칼럼을 통해 "대통령의 할관엔 '영남 피'만이 아닌 '호남 피'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피가 흘러야 한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느 지역만 대표하

고 있는데야 그럴 표현대로 '잃어버린 5년'을 맞이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지역 정치권과 민주당에 대한 '역할론'도 현재로서는 난망이다.

호남이 대통령 만들어야

이제, 호남이 찾아야 할 유일한 자구책이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역정치권의 변화와 수권(受權)에 달려 있다.

호남이 대통령 만들어야

안철수 교수가 됐든, 손학규 대표든, 아니면 범야권이든 될성부른 인사라면 호남사람들이 만들자는 얘기다.

우리는 또 다시 5년, 그 지그재그한 차별과 소외를 되풀이 수는 없다.

우리는 또 다시 5년, 그 지그재그한 차별과 소외를 되풀이 수는 없다. 어떤 식이든 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다.

(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은편칼럼



임명재

단군신화에는 두 가지 동물이 등장한다. 호랑이와 곰이 그것이다. 이 두 동물은 환웅에게 찾아와 인간이 되기를 간청하였고, 환웅은 인간이 되는 방법으로 쏘과 마늘을 주며,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인내하면 인간이 될 것"이라 했다.

단군신화와 젊은 세대

몽은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서 바라본 호랑이와 곰에 대한 시각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스스로 곰과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쏘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인간이 될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새로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그런 곰과 같은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다.

대학가를 보면 사범고시나 행정고시를 필두로 각종 고시를 준비하거나 의학전문대학원, 치과전문대학원, 그리고 최근에는 약학전문대학원으로 진출하여 전문면허증을 획득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으려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지금으로부터 사천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서, 웅녀가 된 곰과 성질대로 뛰쳐나간 호

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웅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그녀가 왕비가 되어 호의호식했다는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여인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 과연 인간이 된 이후의 삶과 곰이었을 때의 삶을 비교하여 봤을 때 인간이 되고 나서 정말 더 행복했을까? 필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동물의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을 것이다.

호랑이의 영역은 415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

그 넓은 영역에서 정말 평평거리며 살았을 것이다. 호랑이가 만약 곰과 같이 변신에 성공하였다면 광범한 인간이 된 것이 후회되지 않았을까? 인간 세상이 시시하고 답답했을 것이다.

필자가 장황하게 곰과 호랑이의 과거를 들춰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곰이 인간을 동경하여 변신을 꾀했지만 그 삶 또한 벌판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발게이츠나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처럼 조그마한 창고에서 엄청난 성공에 대해 현재의 모습으로 도전하는, 호랑이와 같은 삶을 추구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기고



이승욱

F1코리아 그라프리 개막이 이를 앞모로 다가왔다. 세계 3대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고 있는 F1대회는 첨단기술과 많은 자본이 결합된 스포츠로서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F1대회는 지역발전의 원동력

시 개최가 어려운데, F1은 한나라에서 7년 이상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개최국 이미지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의 서남권은 낙후의 대명사,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F1대회는 전남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가브랜드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F1대회는 전남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가브랜드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를 조성해 전남지역을 첨단자동차 산업단지의 메카로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F1대회는 전남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가브랜드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F1대회는 전남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가브랜드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F1대회는 전남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가브랜드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만 국내에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몇 년간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수박람회회를 통해 여수가 남해안 중심도시로 떠오르듯 낙후된 전남으로서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짜야 한다.

대회가 임박했다. 짜릿한 감동의 순간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만 했다. 어린이들은 유료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하다.

만 했다. 어린이들은 유료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머니 충전카드, 부모 동의 받고 구입토록 해야

아이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랍에서 이상한 카드를 발견했다. 살펴보니 '5000원권 사이버머니 충전카드'였다.

아이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랍에서 이상한 카드를 발견했다. 살펴보니 '5000원권 사이버머니 충전카드'였다.

까지 있다고 한다. 카드는 공중전화카드처럼 생겼다.

까지 있다고 한다. 카드는 공중전화카드처럼 생겼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교수들 '밥그릇 싸움'에 위기 몰린 광주교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대상 제외의 대학으로 분류됐던 광주교육대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됐다.

교과부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교과부·교육대·한국교원대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한 협약'에 광주교대가 참여하지 않은 만큼 내년 신입생 정원을 22% 줄이고, 행·재정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69명인 입학정원은 81명이 줄어 288명으로 축소되며, 대학원 정원도 동결돼 내년부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구조개혁 협약에 따라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이다.

광주경찰 기강 해이 도를 넘었다

광주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길키념 그 기강의 해이가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7일 오후 4시께 청사 1층 주차장에서 일부 부서 체육대회를 했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난동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 없이 악화됐다. 대다수 교대가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광주교대만이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70% 이상이 직선제 폐지에 반대한 것이다.

내년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뛰어들어 3~4명의 교수와 그 지지자들이 득표권 때문에 직선제를 고수했다는데, 교수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다.

교과부가 오는 18일까지 구조개혁 동참 의사를 밝혀오면 제재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교육개혁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찰은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강 확립을 압박받아야 되고 있다.

경찰의 자성과 개혁이 시급하다. 경찰을 치안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줄 때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경찰을 치안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줄 때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無 等 鼓

조선시대에는 한 고을의 수령이 부임지로 나갈 때나 임기가 끝날 때 감사의 표시로 보통 그 고을에서 가장 좋은 말 여덟 마리를 바치는 것이 관행(慣行)이었다.

삼마태수(三馬太守)라 부르며 '칭백리'로 기렸다.

승흥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 고려 충렬왕 때에 임기가 끝나는 부사에게 7말의 말을 바치는 관행이 있었는데 최석이라는 승평(지금의 순천)부사는 그 7마리의 말을 아예

우리나라에선 지금 '관행'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요즘 안철수 바람을 타고 떠오른 서 울시장 후보 박원순씨도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입양을 했다는 의혹을 '관행'이라는 말로 피해가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행이라는 단어에 기대려는 사람들이 삼마태수 승흥과 팔마비의 주인공 최석이 왜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관행이라는 단어에 기대려는 사람들이 삼마태수 승흥과 팔마비의 주인공 최석이 왜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관행이라는 단어에 기대려는 사람들이 삼마태수 승흥과 팔마비의 주인공 최석이 왜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